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실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15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룹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 독일의 중동 난민들에게 복음 전파 및 목양을 강화하시며 현지 통역 자들을 얻으소서. - 주님의 사역을 위해 동역자들의 가족들과 건강을 돌보소서. - 성경진리사역원 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변 민원이 해결되게 하소서 - 모든 자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임을 알게 하소서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5.26(목) 오전10시 산곡동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에베소서3차)**

- 일 시 : 5.3(화)~5.24(화)까지 매주 오전 10시 ~오후3시
- 장 소 : 학생센터
-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은 회비 없음)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전국 특별집회(경기권역특별집회)**

- 일시 : 6월 5일(주일) 오전 9시~오후1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컨텍스트 제 2 전시장 1층 Hall 6BC**)

③ 헌금 : 특별집회를 위한 모든 비용은 헌금으로 충당됨
반드시 **1인당 1만원이상** 헌금을 집회장소 출입문 안쪽
에 준비된 헌금함에 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차 : 주차장은 **Gate 3 진입⇒ 지하 주차장 진입 ⇒ Hall 6방
향직간⇒주차후 Hall 6전용 에스컬레이터 이용**
버스는 **Gate 3 진입⇒오른쪽 지상주차장**

(주차비 : 기본30분 1,000원 추가 15분당 500원, 하루 주차비
10,000원 공용주차장 2,000원/1일)

* 주차장 입구는 자동인식이며 출차시 **교통카드**는 터치, **신용
카드**는 삽입하여 결제함.

⑤ 어린이 봉사 :

가) 5세이상 :

* 명찰 : 교회, 봉사자 이름, 핸드폰 번호 // 어린이 이름, 학부도
이름, 핸드폰 번호

* 어린이전람 준비장소 : 제2전시장 1층 Hall 6A안쪽

(대집회장소옆)

나) 5세 미만 및 노약자 : **Hall 6A(대집회장소 옆)**에서 동영상
시청가능

⑥ FM 라디오청취 : 주파수: FM 103.3MHz)

⑦ 떡과 생수를 공급함(집회후 퇴장시 출구쪽) : 기타음식 반입금지

2. 전국특별집회 실시간 및 녹화방송 안내

집 회	집회 날짜	생방송 시간	녹화 가능 시간
서울강원권역	6.5(주일)	16시~18시	6.5일 19시 이후
호남권역	6.10(금)	19:30~21:30	6.11일 09시 이후
충청권역	6.11(토)	11:00~13:00	6.11일 19시 이후
경북권역	6.11(토)	19:30~21:30	6.12일 09시 이후
경남권역	6.12(주일)	10:00~12:00	6.12일 14시 이후

• **집회시간일 경우는 녹화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 **실시간(녹화)집회는 지역별로 하겠습니까.**

《기타 사항》

1. **결혼소식** : 3지역 : 김내성형제, 한창례자매님의 딸 수정자매가
5.22(주일) 오후 2시 파티움 투나 7층 라울홀(송도
라마다호텔 입구)에서 결혼합니다.
(원인재역 지상 4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2.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6년 신촌중국어집회메시지 4

* 다음 메시지는 봄 장로훈련 메시지입니다.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5. 22 16-21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ne@nate.com

바울의 복음 - 완성의 복음

**갈1:11-12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이
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단지 한 면만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한다. 이 관념에 따른 복음 메시지만, 우리는 죄
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사람 받음과 구원받음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
지만, 신약에서 발견되는 복음의 모든 면들을 포함한 것
은 아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기 복음의 다른 면들을 갖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특별
한 면이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의 각 방면들
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
이르는 바울에 의해 쓰여진 모든 서신들에서 우리는 복음
의 특별한 면을 본다. 우리는 이 서신들을 바울에 의한
복음, 또는 다섯 번째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신약의 다섯 복음들의 여러 면을 생각해 보자. 마
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국을 세우
기 위해 왕으로 오셨음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서 「왕국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마태
복음은 왕국 방면을 강조한 복음이다. 그 방면을 강조한
목표는 사람들을 왕국으로 이끌어오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한다. 이 복음에서 우리
는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
나님 자신이기도 함을 본다.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었
다(1:14). 더 나아가 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할 뿐 아
니라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여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으
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복음서에서 요한은 우리를 거룩한 생명에 대한 완전한
이해 안으로 이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
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누가복음에서 강조된 면은 죄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죄 사람을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따르면, 죄의 회개와 사람은 반드
시 모든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임을 지적했다. 마가
복음에서는 어떤 면이 강조되어 있는가? 마가복음은 섬김
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노예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
셨다(10:45). 주님은 왕국을 세우기 위한 왕으로서뿐 아니
라 생명을 분배하는 영원한 존재로서 오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오셨다. 또한
그는 그의 구속된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노예로서 오셨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섬김을 강조
한다.

바울의 복음은 앞의 사복음서의 모든 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책들에서 왕국과 생명과 사함과 섬김
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서신서들에서 더 많은 것을 다룬
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완성의 복음이
다. 바울의 복음이 없다면 신약의 복음의 계시는 완전하
지 못할 것이다.

복음의 많은 중요한 점들이 바울의 글에서만 발견된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
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나 베드로나 요한에 의해 쓰여진 서신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여겨질
수 있다(벧전 5:13). 마가의 복음서의 자료는 그 근원이
대부분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마가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내추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의 복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인을 치렀음을 배운다(엡1:13-14). 요한은 영에 대
해 말했지만 바울이 쓴 것 같은 항목을 사용하지는 않았
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그의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나 요한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바울은 또 그리스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5.09.(월) ~ 2016.05.15.(주일))

지역	1지역 (76명)					2지역 (104명)					3지역 (106명)					4지역 (116명)					5지역 (102명)			6지역 (48명)		7지역 (22명)		계												
그 룹	학 익	인 하	신 홍	청 년 1	청 년 2	간 사	구 수	만 수	장 수	노 년 1	노 년 2	주 안	영 년	동 춘	청 학	송 신	가 사	신 남	가 선	영 회	하 년 2	담 임	검 단	삼 산	부 정	청 산	국 선		효 성	계 선	계 임	학	중 산	윤 남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역상	21	12	16	11	10	6	12	14	13	14	10	18	18	5	25	20	18	25	18	16	6	5	13	19	10	11	10	13	13	29	29	22	22	15	12	12	9	10	12	574
기 도	5	7	7	3	3			6	3	6	7	8	11	7	6	11	11	9	8	5	2	4	11	7	6	6	3	2	8	12	12	5	8	6	8	5	2	6	236	
그 룹	10	8	6	8	7	5	2	6	6	9	7	7	12		9	6	15	13	12	6	5	4	4	10	6	2	5	6	4	7	19	13	14	11	7	7	6	7	8	299
아침부흥	11	8	7	7	4	3																	8	5						2	10	23	16	13	13	7	7	4	5	153
어린이	11					18					13					27					13					8			5		95									
아빠노래											12										7										0		26							
종교동부	8					3					10					10					15					10					2		58							

도가 우리 안에 사시며(2:20),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며(4:19),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의 거처를 만드신다고 말한다(엡 3:17). 이러한 말씀들은 사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총만한 것으로 총만케 됨을 말하고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은 이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은 또한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임을 말한다.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한 항목들은 베드로나 요한의 글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어디서 들었느냐? 나는 주 예수와 삼년 반 동안이나 가깝게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십자가와 주의 양들을 먹이는 것에 관해서 들었다. 나의 첫 번째 서신에서 나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 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몸과 머리의 문제에 관한 한, 바울의 이상이 베드로의 이상보다 높다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몸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바울의 복음서가 없이는 신약의 계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더욱 나타내는 것이다.

바울의 사역이 완전케 하는 사역, 즉 거룩한 계시를 완전케 하는 사역임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바울의 복음은 완성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글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면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바울의 서신들은 거룩한 계시를 완전케 할 뿐 아니라,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심장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완성의 복음일 뿐 아니라 신약의 계시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의 복음은 기본적인 복음이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바울의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은 자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장차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주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만유 안에서 만유를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인 이 몸은 새 사 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믿음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 바울의 복음 안에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루지 않은 비밀한 것들이 많이 있다. 사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골2:2) 것이나 신성의 모든 총만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한다는(골 2:9) 것을 말하지 않는다. 사실, 사복음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대한 분명한 말도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분명하게 다루어져 있는 곳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이다. 마태복음이 행정의 문제인 왕국에 대해 분명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계시에 의하면, 복음은 그 중심을 행정에 두고 있지 않다. 복음은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됨으로써 우리와 하

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의 행정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쳐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모든 것이 됨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원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상은 사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는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러한 계시에 분명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역사적인 교회의 가르침이나 신조들이나 종교회의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만유를 포함한 영이 되었다는 바울의 계시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것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바울에 의한 복음을 합당하게 알고 있음을 가리킨다.

바울의 복음의 중요한 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된다. 바울은 1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그러나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바울은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말하고 있고,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한다. 6장에서 그는 열네 개의 중요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사람의 영(1절, 18절), 그리스도의 법(생명의 법, 2절), 성령(8절), 영원한 생명(8절), 가정(10절), 믿음(10절), 그리스도의 십자가(14절), 종교적인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못 박혔고 바울이 종교적인 세상에 못 박혔음(14절), 새 창조(15절), 평강(16절), 구홍(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16절), 예수의 흔적(17절), 그리스도의 은혜(18절)이다. 이 항목들의 대다수가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바울의 글들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복음서를 낮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의 목적은 다섯 번째 복음인 바울의 복음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모든 복음 사역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지로는 바울의 사역을 완전히 받아들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복음서를 받았지만 다섯 번째의 복음을 충분히 받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기독교 안에서의 전통적인 복음의 이해는 매우 좁다. 그것은 신약에 계시된 복음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젊었을 때, 복음에 대한 나의 조망은 제한되어 있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보았다. 나는 바울의 서신들 안에 나타난 복음의 놀라운 면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다. 오늘날 몇몇 목사들까지도 바울의 서신의 100장 안에 계시된 복음을 합당하게 알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L/F 2장에서 발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할 때의 태도

엡5:26-27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을 반드시 이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 우리가 해야 할 직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취해야 할 길이다. 이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먼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시리라 하는 확신이 있다. 둘째로, 그분은 모든 지체가 살아 있고, 그 영으로 총만하고, 생명으로 총만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 본질을 회복하실 것이다. 셋째로, 그분은 에베소서 4장을 회복하여 모든 은사 있는 자들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역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넷째로, 그분은 모든 성도가 모두 신언자로서 주님을 위해 말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4장을 회복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이 일을 완수하시리라 믿는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곧잘 주님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느슨함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는 천 년이 하루와 같다. 그분은 결국 그분이 갈망하는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분은 조만간 그것을 완수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반드시 성공 한다.

나는 오십년 이상을 주님을 위해 일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이십 년 동안 중국 대륙의 많은 지방을 다녔다. 대만으로 간 이후에는 대만과 남아시아를 10년 동안 오고 갔었다. 그 후에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십육 년간 나는 보고 듣고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리하여 체제를 바꾸는 문제에 관해 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커다란 산'을 우리 중에서 밀어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구출될 수 있고, 주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지난 삼 년 동안 내가 말해 왔던 체제를 바꾸는 것이 모든 방면에서 성경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체제를 바꾸는 것이 성공하리라고 믿지는 않는다. 형제들이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는가?

지난 이천 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가? 나는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점일획이라도 모두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주님은 그 길을 뚫으시고, 그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이 길이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선포하기를 바란다. 오늘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일 성공할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의 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성실히 분투해야 한다(마 26:41, 롬 12:11, 골 1:29, 고전 15:58). 우리는 오늘날 주의 회복 안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유기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게으르거나 느슨하지 않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진지하며 철저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분투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의 빛 안에서 살고 행함으로써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골3:20, 고후5:10).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심판대의 빛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성경적인 길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부흥되고 새롭게 된 생명을 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며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능력과 권위와 그분의 말씀하심을 의뢰해야 한다. 매주 우리는 이를 저녁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일기 년 동안이 아니라 주님을 얼굴로 마주 대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참고 이러한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제30과에서 발췌)